Butadiene, 720달러로 강세 지속

FOB Korea 710-730달러로 20달러 상승 … SBR은 구매기피 전환

Butadiene 가격은 8월30일 FOB Korea 톤당 710-730달러로 20달러 상승했다.

아시아 부타디엔 시장은 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하자 수요자들이 구매를 자제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9월 중국 판매물량 1000톤을 FOB Korea 720달러를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 한국산 부타디엔을 720달러에 구매한 수요자는 ABS(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 생산기업으로 알려지고 있다.

SBR(Styrene Butadiene Rubber) 생산기업들은 부타디엔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구매를 거의 포기하고 있는 상태이다. 부타디엔 가격상승분을 SBR 판매가격에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타이완 및 한국의 부타디엔 생산기업들은 CFR 750달러까지 요구하고 있어 수급타이트를 이용해 지나치게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동북아에서는 부타디엔 가격이 720달러 이상을 돌파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더군다나 부타디엔 가격상승을 받아들였던 ABS 생산기업들도 AN(Acrylonitrile) 및 Styrene 가격강세가 지속됨에 따라 ABS 생산코스트가 높아져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가 역력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동남아시아에서는 한국 및 중국에서 부타디엔을 수입하고 있어 상당히 높은 수준에 형성돼 있는데 CFR SE Asia 가격은 톤당 760-770달러를 나타내 CFR Taiwan의 700-740달러에 비해 30-50달러 비싼 편이다.

동남아시아 가격은 9월말 또는 10월초 거래가격이 FOB Korea 750달러를 나타내고 있고, 중국의 Yangtze Petrochemical은 FOB 700달러에 판매했으나 운송비를 감안하면 CFR Taiwan 750달러와 맞먹는 가격이다.

한편, 미국의 부타디엔 가격은 CIF US Gulf 파운드당 28.00-29.00센트로 톤당 평균 628달러를 형성하면서 22달러 상승했다.

그러나 미국의 부타디엔 계약가격은 8월 기준 파운드당 24.00센트로 낮은 편이다. 9월에는 대량 수요처인 2개의 타이어 생산기업은 9월에도 24센트에 공급받는 반면, 소규모 수요처들은 25센트로 1센트 인상된 가격을 적용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타이어 가동률은 85%를 나타내고 있으나 자동차 수요부진으로 9월에도 80%대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2/09/03>